



광주시립교향악단

음악·창극·판소리... 풍성한 무대

광주시립예술단체 하반기 레퍼토리 확정



8월 휴지기를 가졌던 7개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하반기에도 다양한 무대를 마련했다.

매년 한차례 시립예술단들이 함께 제작하는 광주문화재단 기획공연은 합창단이 주축이 돼 준비할 칼 오르프의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10월9일 광주문화재단 대극장). 교향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이 함께 출연하며 국립합창단이 협연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29일 열리는 '러시아의 서정'(박스 참조) 공연을 시작으로 하반기 레퍼토리를 확정했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초청연주도 예정돼 있다. 9월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과 발레리 소콜로프(바이올린), 알렉세이 사드린(첼로), 에베게니 이조토프(피아노)가 협연하는 베토벤의 '삼중협주곡 56'을 들려준다.

9월26일 '주제와 변주' 공연에서는 브람스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56a'와 동수정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2번'이 연주되며 광주대학교 학생을 위한 시네마 콘서트(10월16일)도 예정돼 있다.

또 정음성악제에 참여, 중국의 엔 사오 지후로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2번'과 야메이 유(뒤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대학 교수)의 협연으로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을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국극단 창극 '新 춘향', 극단 '우리읍내' 등 공연

연주한다.

11월 12일 열리는 정기연주회에서는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작품 14'가 연주되며 첼리스트 송영훈이 차이코프스키의 '첼로를 위한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33'을 협연한다.

12월30일에는 '고성현과 함께하는 2014 송년음악회'가 열린다. 고성현·나승서·강혜정 등 성악가들이 함께 하는 무대로 푸치니의 '라 보엠' 중 '그대의 찬송' 등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그밖에 광주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리코더 협연을 즐길 수 있는 '비발디와 리코더'(11월18일) 공연에서는 2009년 몬트리올 국제 리코더 콩쿠르 우승자인 권민석씨의 협연으로 비발디의 '협주곡 작품 441'을 감상한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299'(윤혜리·이정화 협연)를 들려주는 '고전과 낭만사이'(12월12일)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립합창단은 기획공연으로 준비한 '카르미나 부라나' 공연을 9월 30일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리며 11월에는 서울시립합창단과 교류 음악회를 진행한다. 올해 마지막 공연은 12월 11일 열리는 헨델의 '메시아'다.

광주시립국극단은 창극 '동기호태'로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 9월3~4일 공연되는 '동기호태'는 세르반테스의 원작 '돈키호테'를 재구성한 작품. 돈키호테와 산초가 '배비장전'의 무대인 제주도에서 만난 기생 애랑을 공주로 착각하고 애랑을 구하기 위해 배비장과 한양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1월에는 또 하나의 창작 창극을 준비 중이다. '춘향전'을 재해석한 '신(新) 춘



남상일

향'이다. 2014년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 프로젝트로 대구시립관현악단과 함께 작품을 제작한다. '신 춘향'은 대구문화예술회관, 광주문화회관, 전남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9월 30일 남미 에라도르 연주단과 협연 무대를 진행한다. 그룹 '로스 안데스'와 함께 '엘콘도르 파사' 등을 국악관현악으로 들려주며 이날 사회를 맡을 스타 국악인 남상일씨가 창작 판소리 '노총각 거시기 가(歌)', '장타령' 등을 선사한다.

광주시립극단은 11월 정기공연작품으로 '우리읍내'를 공연한다. 드라마스튜디오를 이끌었던 강남진 백제예술대 교수가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풀리처상 수상작인 손톤 와일라의 동명 원작을 광주 송정리를 배경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9월 초 오디션을 실시한 후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밖에 광주시립무용단은 '호두까기인형'(12월18일~19일) 등을 준비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러시아의 서정'

광주시향 29일 하반기 첫 공연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이현세)은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서정' 공연을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차이코프스키의 오페라 '에피그니 오네긴' 중 '폴로네이즈 작품 24'로 문을 여는 이날 공연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사진)이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을 협연한다. 줄리아드에서 수학

한 오씨는 뉴욕 영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콩쿠르 최연소 우승하며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렸다. 현재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중신 단원이다.

피날레곡은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주 목사고을시장서 국악 한마당

30일 오후 7시...박애리 진행

국악방송 웹TV 통해 생방송

전통시장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국악 한마당.

국악방송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국악콘서트 악장(樂場)' 네 번째 행사가 오는 30일 오후 7시 나주 목사고을시장에서 열린다.

MC 뽀빠이 이상용과 국악인 박애리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윤진철(광주시립국극단 예술감독·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국악인 남상일, 한국 무용가 진유림(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 이수자), 가야금 병창 이영애(광주시 무형문화재 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 씨 등이 출연한다.

또 2013년 제7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박애리

트에서 동상을 받은 '두달빛', 한국종합예술학교 피리과 '해피범부'팀, 국악방송 예술단이 출연해 뛰어난 국악을 선보인다.

이날 공연 모습은 국악방송 웹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방송프로그램으로 재편집해 소상공인방송 Yes-TV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목은공방 계림창작예술촌 오픈 스튜디오

내일 오후 1시~8시

모두 6명의 작가가 활동할 예정이다.

2014 광주문화재단 레지던스사업으로 선정된 은암미술관의 '목은공방 계림창작예술촌'이 29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한다.

계림동(경양로) 도로와 골목길을 끼고 건물사이에 위치해 있는 계림창작스튜디오는 일본식 주택과 한옥의 특징이 혼합된 형태의 가옥이다.

지난 5월부터는 작가들이 입주하기 시작해 현재 김경란, 김자이, 박세희, 박지웅, 마이클시어먼 등 5명의 작가가 입주해 있으며 9월 입주하는 박정용까지

오픈스튜디오가 열리는 날에는 김자이, 박세희가 진행하는 커뮤니티프로젝트 살롱이 진행된다. 스튜디오 마당에 야외 살롱을 설치하고 네일아트와 헤어 스타일링으로 주민을 맞이하게 된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zi@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시집

류시화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교보문고 집계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시집은 류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문고가 27일 집계한 '2004~2014년 시집 판매 순위 톱20' 자료에 따르면 류시화 시인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5년 출간된 이 책은 치유를 주제로 한 동서양 유명 시인들의 시 77편을 묶은 집안시집이다. 2위 또한 류시화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였다. 시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도 5위에 선정, 모두 3권의 시집이 20위 안에 진입했다.



3위는 박경리 작가의 유고 작품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찰흙가분하다'가, 4위는 하상욱 시인의 '서울 시'가 선정됐다. 이어 신현림의 '떨아 외로운 때를 시를 읽으렴'(6위), 도종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나'(7위), 민예원 출판사 발행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시 100선'(8위), 일본의 할머니 시인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9위), 고(故) 장영희 교수가 영미권 시인들의 시를 소개한 '축복'(10위)이 뒤를 이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전문점

작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 약오리
- 오리구이
-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50년 전통의 맛 원조

나주곰탕

곰탕	8,000	국내산(한우)
특곰탕	10,000	
수육곰탕	10,000	
육회비빔밥	7,000	
육회	30,000	
수육	중 20,000	
	대 30,000	

고추기름 : 국내산, 쌀 : 국내산, 배추김치 : 배추(국내산)

나주에서 직접 전수한 맛의 명품

원조 나주곰탕 대표구회원

Tel. (061) 287-8884
Mobile. 010-2631-3336
목포시 옥암동 1248-4(옥암푸르지오APT 건너편)